

SUNBO NEWS

since 1986

www.sunboind.co.kr

E-mail sunbo@sunboind.co.kr

대표전화 051. 261. 3454

본사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산로 80

사훈 항상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자

PLUS2020 | 고객이 영업을 창출하는 명품 모듈 생산 초우량 기업

2019년 9월 15일

vol. 188

주요 소식

전사 대상 안전사고 대처 프로세스 개선 사고 없는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의지 표명



우리 회사는 매주 임원회의에서 나온 회장님 특별지시사항 등에 대하여 전사가 공유하고 있다. '안전사고 사후조치 시스템'도 그중 하나이다. 최근 모기업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보여준 일련의 체계적인 후속조치를 거울삼아 HSE팀에서는 우리 사업장에 적합한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시행을 준비 중이다.

새롭게 선보이는 사고처리 프로세스는 사고 경중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서 보고 체계 및 기한과 대책을 달리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다. 먼저 위험도와 발생빈도에 따라 E등급부터 A등급까지 위험등급을 세분화하였다. 위험성이 아주 낮고 추가적인 대책 없이 작업이 가능한 수준의 E등급부터 개선조치 및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여 위험등급을 낮춘 후 작업 재개가 가능한 A등급까지 단계별 위험등급에 따라 보고 프로세스를 달리하였다. 위험성평가에 따른 위험등급의 설정 및 보고 절차의 체계화를 통해 보다 빠른 문제해결 및 재발방지를 도모하고 조직 내 안전의식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다 안전한 사업장 환경 조성을 위하여 HSE 교육 체계에도 변화를 주었다. 이전까지는 각 공장마다 안전교육담당자를 두어 공장별 안전교육을 진행하였다면, 이제부터는 공장별 안전교육담당자가 타 공장도 교차로 교육을 진행한다. 가령, 다대1공장의 안전교육담당자가 다대 2,3공장 및 구평공장과 구평1공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전사가 공감하고 선보패밀리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안전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달(9월) 안전교육 내용은 질식/낙하

재해 예방과 올바른 집지 방법, 밀폐 공간 및 화기작업 절차를 소주제로 집체교육 및 체험 실습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작업장 내 휴대폰 및 이어폰 사용에 관해서는 주의사항을 공유하고 있으니 선보패밀리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금번의 안전사고 대처 프로세스 개선 및 전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안전교육의 목적은 선보패밀리 각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있다. 사고 없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개인 및 조직의 강한 의지를 확인하는 한편, 그 어떤 사고라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사 한마음이 되어 노력할 때 진정으로 안전한 사업장에서 선보패밀리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 것이다.

등급 구분과 등급 별 대응 가이드

위험등급	위험 등급별 가이드	대응(조치) 가이드
A 등급	개선조치를 실시하여 위험등급을 낮춘 후 작업 재개 -등급 수준을 낮출 수 없다면 해당 작업 금지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여 등급조정 - B등급 이하로 낮추거나 / 불가 시 작업 변경
B 등급	위험정도가 심각 수준 이상으로 고 위험으로 분류	"A" 등급에 준한 안전조치가 필요함
C 등급	위험을 합리적으로 수용(실행) 가능한 최대한 낮은 수준의 위험도 -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중/장기적인 대책 수립 필요	즉각적인 개선조치 후 작업 가능 - B등급 합법적으로 수용, 실행 가능한 낮은 수준
D 등급	현재 수립된 대책이 실효성을 갖추고 작업 가능한 상태	대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 - 관리자는 대책이 정상적일 경우 작업재개를 결정
E 등급	위험성이 최대한 낮은 수준으로 추가적인 대책 없이 작업 가능	현장 관리자(직/반장)가 현 수립된 안전조치 사항의 시행 여부를 확인 후 작업 재개

서면보고 작성 주체

위험등급	최초 보고서 작성주체	최종 보고서 작성주체	최종 보고 대상	최종 보고서 보고 기한
A 등급	HSE	HSE	대표이사	36h
B 등급	현업 (사고발생) HSE	HSE	대표이사	24h
C 등급	현업 (사고발생)	HSE	대표이사	24h
D 등급	현업 (사고발생)	현업 (사고발생)	공장장	24h
E 등급	현업 (사고발생)	현업 (사고발생)	부서장	12h

방문

부산고용센터 고동우 소장 일행



9월 2일 부산고용센터 고동우 소장님과 사하고용복지센터 문성호 소장님, 사하고용복지센터 한태욱 팀장님, 사하구청 일자리복지과 이귀향 과장님, 부산고용센터 취업지원 백준성 팀장님이 우리 회사를 방문하였다. 최금식 회장님과 서재욱 상무, 유무성 부장, 사하구 기업발전협의회 김종렬 사무국장이 방문단을 맞이하여 지역 고용 안정화를 주제로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부산고용센터는 사람과 일자리의 연결이 노동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며 체계적인 심층 서비스 및 직업 훈련과 연계 등을 통하여 고용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구직자의 적성 발견 및 직업 선택 지원, 일자리 정보 제공, 직업 능력 진단 및 직업 훈련 정보 제공, 맞춤형 취업 지원 및 취업 능력 배양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상반기에만 50여 명의 직원을 채용하고 수시 채용을 통해 지역 고용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 바, 방문단은 선보의 이 같은 노력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앞으로도 대표적인 지역 우수 중소기업으로서 역할에 힘써줄 것을 부탁하였다.

회사 소식

김용완 부회장 취임



김용완 전 대한해운 대표이사가 선보그룹 부회장에 취임하였다. 김용완 부회장은 기업구조조정과 개혁에 능통한 경영계의 베테랑이다. 그를 만나 부회장 취임 소감과 포부를 들어보았다.

Q 해운업계 경영자로서 외부에서 본 선보그룹은 어떤 기업이었는지요?

해운회사를 경영하는 CEO 입장에서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안전운항입니다. 안전운항을 위해서는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선박이 건조되어야 하지요. 선보는 이에 필요한 선박 기자재를 첨단 기술과 품질로 생산 및 공급하는 기업이라 평가했습니다.

Q 선보그룹의 어떤 점이 이끌어 부회장직 제안을 수락하셨는지요?

최금식 회장을 중심으로 오랜 전통과 인화단결로 형성된 선보FAMILY 정신에 감명을 받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수락하였습니다.

Q 지난해 해운업계의 극심한 불황 속에서도 호실적을 기록하며 해운사 최고경영자(CEO) 중에서도 두드러지는 경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받았습니다. 부회장의 경영철학은 무엇인지요?

기본적으로 회사라는 조직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사원부터 CEO에 이르기까지 한 몸처럼 소통하면서 유기적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첫째, 자기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둘째, 주인이라는 마인드로 책임완수(책임경영)를 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직원 간 소통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도산 안창호 선생의 무실역행(務實力行: 공리공론을 배척하며 참되고 성실하도록 힘써 행할 것을 강조하는 사상)의 정신을 새기고 있습니다.

Q 선보그룹이 어떤 조직으로 나아갔으면 하시는지요?

우리는 21세기 무한경쟁의 세계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이 몰려오는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변화와 개혁, 과감한 R&D 투자에 의한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여건이 성숙된다면, IPO를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와 명성을 지닌 선보그룹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선보그룹과 인연을 맺은 소감과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회사의 조직과 시스템에서 33년의 땀과 노력을, 일당백의 역할을 하는 소수정예의 직원들의 열정을 느꼈습니다. 훌륭한 선보그룹의 일원이 된 데 무한히 기쁘게 생각하며, 일등기업 선보에 일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선보 패밀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2003년에 어려운 기업을 살리는 기업구조조정에 공로했다며 모 경제일간지에서 저를 '미다스의 손'으로 게재한 적 있습니다. 그 기운이 선보그룹에도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젊은 직원들께는 "Yes, I Can"의 자세로 성공과 행복의 길을 함께 달려나가자고 말씀드립니다.

김용완 부회장 약력 및 주요 경력

- 대한해운(주) 대표이사
- 삼라네트웍스(주) 대표이사
- SM그룹 경영지원 본부장
- 한국산업은행(기업구조 조정실 팀장/여수지점·구로지점 지점장/영업부장)

- 한국의 중요 기간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한국산업은행에서 포스코, 한전 등 주요 거래처에 내외자 자금 지원을 통하여 우량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
- 1997년 IMF사태로 어려워진 기업을 살리는 기업구조조정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부실기업을 회생시키는 데 공헌
- 해운 불황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대한해운을 M&A 후 2013년 CEO 취임하여 단시간 내에 우량기업으로 탈바꿈
- 2017년 CEO스코어의 상장기업 평가에서 6위(매출 10조 미만)에 오르는 평가를 받음

회사 소식

선보엔젤파트너스, 삼진어묵과 합작법인 설립



선보엔젤파트너스는 어묵 사업을 재정의하여 고급화와 대중화를 이끈 '삼진어묵'과 함께 한방 약차 제조 기술의 합작 법인 '온지'를 설립하였다. 첫 프로젝트로 한방과 양방을 전공한 젊은 창업가와 함께 한방차와 한식 간식들을 재정의한

'온지1433'도 론칭하였다. '온지1433'이라는 브랜드명은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줄임말 '온지'와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이 간행된 1433년을 결합하여 탄생하였다. '옛 것을 익혀 새 것을 안다'는 온고지신의 정신과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집필한 『향약집성방』의 애민 정신을 담고 있다. 새로운 혁신을 만들려는 F&B 산업의 창업자들과 식품을 재정의한 새로운 브랜드들을 만들어나가고자 한다.

한편, 선보엔젤파트너스가 중견기업과 오픈이노베이션 협업을 통해 합작 법인을 설립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5월 조광페인트와 수전해 촉매 기업 '리포마(RIFORMA)'를 설립한 데 이어 7월 기성전선과 고부가가치 케이블 '피즈케이블'을 설립하였다. 리포마는 설립과 함께 TIPS에 선정되고, 설립 4개월 만에 후속투자 유치를 결정하는 등 눈에 띄는 결과를 내고 있다.

사내복지

하반기 사내영어교육 실시



지난 8월 20일부터 하반기 사내영어교육이 시작되었다. 이번 교육에는 총 33명이 신청하여 공업에 2개 반, 구평공장에 2개 반이 각각 개설되었다. 하반기 영어교육은 12월 12일까지 매주 2회씩 총 4개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원어인 영어교육과정은 우리 회사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 매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사내교육의 산실이다. 상반기 교육에만 총 29명이 참여하여 90%의 수료율을 기록할 만큼 직원들의 참여와 관심이 크다. 우리의 경영환경은 급격한 기술진보와 글로벌화로 외국어 능력이 더는 선택 아닌 필수가 되었다. 외국선주 및 외국바이어의 방문과 업무협회가 빈번한 우리 회사는 영어회화 활용도가 어느 회사보다 높은 편이다. 이에 직원들 개인의 영어회화 능력 향상이 요구되는 바, 영어회화교육의 중요성이 커졌다. 올해부터는 인사과 과에도 직원들의 영어교육 참여도가 적극 반영되어, 임직원들의 글로벌 역량 및 자기개발 강화를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까지 이뤄지고 있다.

업무 종료 후에도 저녁 늦게까지 스스로 남아서 개인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구슬땀 흘리는 선보패밀리의 열정 속에 선보의 밝은 미래를 보는 듯하다.

사내 복지

선보패밀리의 활발한 동호회 활동을 응원합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노동시간의 혁명이라 불리는 '주 52시간 근무시대'가 열리며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워라벨은 '일과 삶의 균형'을 일컫는 말로, '장시간 근무관행 바꾸기', '일하는 방식 바꾸기', '일하는 문화' 바꾸기 등에 관련한 10가지 제안사항 실천을 통해 현실적 실현을 독려하고 있다. 실제로 산업전반에 워라벨 문화가 확산되면서 개인 취미나 여행, 자신을 위한 보상적 소비 등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런 사회적 변화의 분위기에 발맞추어 우리 회사 역시 '문화행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선보패밀리가 다양한 경험을 하며 일과 삶의 균형을 누릴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동호회 활동 지원 역시 이러한 행보와 궤를 같이 한다. 직장 내 동호회 활동은 원했던 취미를 배우며 동료 간 정보 공유와 친목을 도모하고, 스스로 만족을 찾기 위한 활동으로 각광받는다. 취미가 맞는 사람들과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타 부서원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물론, 부서 간의 관계 형성을 통해 조직력을 갖추는 효과도 있어 업무 효율성까지

높일 수 있다.

선보에서는 현재 9개 동호회에서 총 128명이 활동 중이다. 우리 회사는 1인 1동호회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바, 이중 6개 동호회는 최근 창단한 1년 미만의 신생 동호회로서 상반기에 1인당 3만 원의 창단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지난 8월까지 상반기 활동실적을 제출받아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하반기 활동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회원 수, 활동기간, 동호회 고유활동, 기타활동 총 4개 평가항목에 따라 순위가 정해지며, 평균참석율에 따라 지원금이 결정된다. 또한 순위별로 100%에서 200%까지 지급율을 차등 적용하여 활동을 열심히 한 동호회에 좀 더 많은 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연말 우수동호회에게는 특별지원금 백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동료애를 돈독히 해주는 것은 물론, 업무 효율 향상의 효과까지 있는 동호회 활동에 보다 많은 선보패밀리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1. 실적평가 결과

- | | |
|----------------------------------|--------------|
| 1등 선보피싱회(낚시) | 4등 캠핑동호회(캠핑) |
| 2등 영암스크린골프(골프),
SB풋살(풋살) - 공동 | 5등 시네마영암(영화) |
| 3등 선보줄바등호회(줄바) | 6등 선세모(자동차) |

2. 활동지원금

- ① 인당 3만 원 X 회원수 X 평균 참석율%
 - ② 순위별 지급율 차등적용
- 1등 200% 2등 150% 3등 이하 100%

선보피싱회



영암스크린골프



SB 풋살



줄바



캠핑동호회



선세모



시네마영암



사회공헌

2019년 하반기 헌혈행사 성료



지난 8월 21일, 2019년 하반기 헌혈행사가 진행되었다. 여름철은 학교 및 직장의 여름휴가와 방학 등으로 혈액 공급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계절이다. 이에 올해에도 많은 선보 패밀리가 한마음으로 헌혈행사에 참가, 헌혈에 대

한 열기를 이어갔다.

하반기 헌혈행사는 공장별로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각 공장에 헌혈버스 한 대씩 총 두 대가 동원되었다. 본사와 구평1공장에서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다대 2,3공장과 구평공장에서 각각 2시 10분부터 4시까지 진행되었다. 평소 바쁜 회사 일정으로 시간을 내기 힘든 직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뿌듯한 경험을 나누었다. 특히 올해 하반기 헌혈 행사에는 각 공장에서 모두 35명이나 되는 임직원이 함께함으로써 헌혈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온 남다른 봉사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이번에 모아진 혈액은 고액의 수혈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역 내 혈액질환 환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우리 회사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헌혈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헌혈행사를 시작한 지 10주년이 되던 지난해에는 대한적십자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하는 등 선보패밀리의 꾸준한 헌혈 행보가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고 있다. 나눔을 실천하는 선보패밀리의 이 같은 행보가 더욱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 ☑ **본사** 유병창(9.04) 윤준호(9.14)
권순창(9.19) 정태욱(9.21)
강순호(9.29) 이종필(음9.16)
김희태(음9.27) 문해기(음9.27)
- ☑ **1공장** 레이마크(9.07) 이은식(9.08)
바나산(9.15) 이창재(9.21)
케이이(9.28) 이창호(음9.07)
- ☑ **2공장** 설신호(9.06) 허준형(9.11)
정혜성(9.19)
- ☑ **구평공장** 전석연(9.15) 김도영(9.24)
- ☑ **구평1공장** 최준(9.01) 양군자(9.02)
김경태(9.03) 김용호(9.03)
박영수(9.06) 강경훈(9.08)
김지태(9.10) 최기웅(9.11)
김창영(9.13) 김범석(9.14)
최근석(9.17) 유재승(9.19)
최남일(9.20) 후수지에(9.21)
유인애(9.23) 루이스(9.24)
전철민(9.29) 김성용(9.30)
장세열(9.30) 김기범(음9.27)
- ☑ **영암공장** 권상용(9.13) 최경식(9.20)

건강

“스포츠 7330”으로 건강한 일상 누리자

“일주일(7)에 세 번(3) 이상 30분씩 운동하자!” 국민생활체육회가 스포츠 참여 범국민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이는 운동 참여를 도모하는 캠페인인 동시에 운동 주기와 지속시간, 운동 강도를 제시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 운동 강도는?

운동 강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표준이 되는 것은 운동 능력을 100으로 했을 때 약 몇 %의 강도로 할 것인가이다. 일반적으로 최대 운동 맥박의 약 60~80% 범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 처음에는 60% 정도의 운동 강도가 맞았는데, 이는 통상 목표 심박수 130 정도에 해당한다. 이 정도 강도로 운동하고 나면 대체로 숨이 약간 차고 피부가 땀으로 촉촉해진다.

☑ 운동방법

1.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운동에 적응하라

처음에는 가벼운 운동 강도와 짧은 운동 시간, 적당한 운동 빈도에서 시작해야 한다. 체력이 증가하면 점차적으로 늘린다.

2. 흥미를 느끼는 종목을 선택하라

취향과 스케줄에 따라, 아침·점심·저녁 중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시간대를 선택한다.

3. 편안한 강도의 운동으로 하라

운동 중 호흡이 지나치게 가쁘거나 가슴 통증, 다리 통증 등 불편한 느낌이 드는 것은 강도가 지나치게 높은 결과다. 이럴 때 강도를 낮춘다.

4. 안전에 신경 쓰라

신발과 복장을 제대로 갖추고 안전한 장소에서 한다.

5. 다양한 종목을 선택하라

종목을 바꿈으로써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다. 가령, 배드민턴, 테니스, 수영 등을 병행한다면 지속하기가 더 쉬울 것이다.

☑ 왜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운동을 해야 할까?

스포츠 생리학적으로 우리 인체가 외부 자극(육체 활동)에 영향을 받아 지속하는 시간은 약 48시간(2일) 정도라고 한다. 따라서 일주일에 3회 이상은 운동을 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일주일에 5일 이상 운동을 했을 때 추가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관련된 효과를 생각할 때 3~4일 운동이 투자한 시간에 비해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미이다.

☑ 왜 30분 이상인가?

투자 시간에 비해 가장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30분 이상 하는 것이다. 운동할 때 시용되는 주 에너지원은 탄수화물과 지방인데, 탄수화물은 낮은 중강도 운동 때 주요 기질로 작용한다. 그러나 장시간(30분 이상) 지속하면 지방으로 기질대사의 의존율이 증가한다. 즉,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운동 후 30분이 지나면서 서서히 지방이 분해, 소모되는 것이다.

일상 기념일

- ☑ **본사** 강형주(9.02) 장태린(9.03)
신유철(9.07) 백병호(9.11)
고중현(9.27)
- ☑ **1공장** 이철현(9.07) 허현(9.07)
명철환(9.09) 김수환(9.13)
- ☑ **2공장** 성기갑(9.01) 조영록(9.01)
김성호(9.02) 김승우(9.24)
- ☑ **구평공장** 송기열(9.01) 반폭(9.03)
정용수(9.14) 정광진(9.18)
이동준(9.25) 김성민(9.27)
정민수(9.27)
- ☑ **구평1공장** 고영팔(9.01) 김대오(9.01)
김수영(9.01) 김승표(9.01)
김시원(9.01) 김신(9.01)
김원용(9.01) 김진대(9.01)
도밍고(9.01) 문승석(9.01)
박길섭(9.01) 박상언(9.01)
박일수(9.01) 박종국(9.01)
박종운(9.01) 방재호(9.01)
서우영(9.01) 석태민(9.01)
송상익(9.01) 신용재(9.01)
심백수(9.01) 아꼬말(9.01)
아크람(9.01) 안병래(9.01)
오민석(9.01) 유재기(9.01)
윤대삼(9.01) 윤상동(9.01)
윤정아(9.01) 이상인(9.01)
이상훈(9.01) 이수진(9.01)
이용주(9.01) 이창환(9.01)
이충환(9.01) 정경근(9.01)
정득춘(9.01) 정상범(9.01)
정윤환(9.01) 존(9.01)
진중관(9.01) 허성희(9.01)
공민식(9.06) 김광호(9.07)
차성덕(9.07) 김대성(9.11)
김미화(9.11) 배정현(9.11)
손현숙(9.11) 양현미(9.11)
이고미(9.11) 조원우(9.11)
최성호(9.12) 김상진(9.20)
강래운(9.21) 박영수(9.21)
조현상(9.23) 전민재(9.26)
- ☑ **영암공장** 최석균(9.01) 최경식(9.04)
능(9.06) 맥(9.06)
서리문(9.06) 딜란(9.13)
이민현(9.13)